한반도에 사는 당신이라면 알아야 한다

사드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드 문제를 한국과 협의 중이다.

로버트 워크 미국방부 장관 (2014. 9. 30)

사드 배치 관련하여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 10. 2)

이미 부지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한국과 사드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프 폴 미 국방부 공보 담당관 (2015. 2. 12)

사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3NO다.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2015. 3. 11)

사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평택, 원주, 부산 등 비공식 부지 조사를 진행했다.

주한미군사령부 보도자료 (2015. 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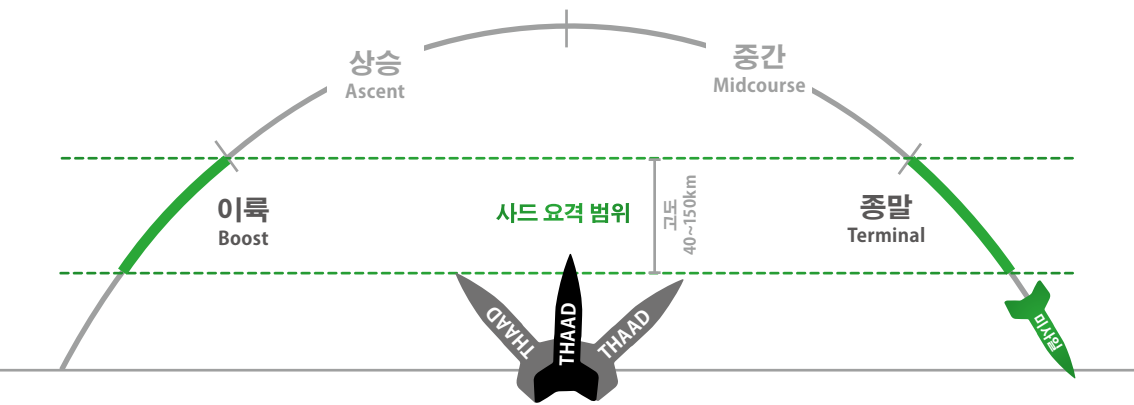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 지역 방어체계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속하는 무기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중상층 고도40~150km에서 다른 미사일로 요격하여 파괴하는 시스템

탐지하는 레이더와
요격하는 미사일이
사드의 핵심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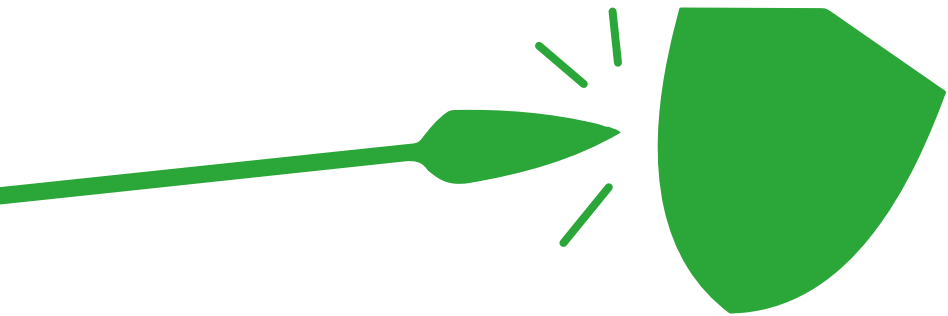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노노,
이름만 '방어용'
사실은 공격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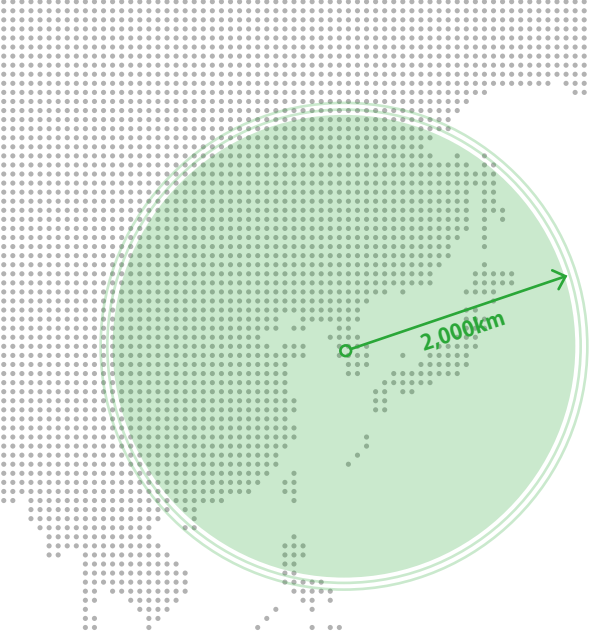
절대방패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욕망으로 탄생한 MD 미사일 방어체제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는 아무때나 맘대로 때리겠다"



그래서 미국 MD 얘기만 나오면
주변국이 치를 떠는군요 -_-

ㅇㅇ 그리고 사드의
'레이더'도 문제예요



주변국과 갈등이 심해지겠죠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1000~2000km!

미국의 주장대로 남한에 배치하면
북한과 중국 동부를 넘어
러시아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어요

주변국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죠

"중국은 사드 배치에 명확히 반대한다.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크게 손해를 끼칠 것"

- 주한 중국대사

"한반도 사드 배치 우려한다.
동북아 지역 군비경쟁을 부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

- 러시아 외무부

"2015년 한·중 교역 규모를 3천억 달러까지 올리겠다" - 박근혜 & 시진핑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과연 사드 배치가 도움이 될까요?

주변국이 반발해도 필요하면
도입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더 꽝당한 건,
한반도에는
쓸모가 없다능.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 2013. 6. 24.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

직구가 있는데 뭐하러 허공으로 높이 던집니까?

사드는 기본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딱 붙어있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다면
사거리 300~500km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에요.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는 무관하죠.**

"사드,
목표 맞춘 적 없는
총 구입하는 격"

- 2015. 3. 11.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게다가 기술적으로 검증도 안 되었어요.
사드는 아직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조사가 했던 테스트로는
요격 성공률이나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이 문제투성이 무기의 가격은?

사드 1포대 구축 비용
= 약 2조

*유지 비용은 아무도 모름

* 경상남도 학생들에게 18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군사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억제' 전략이 빠지는

군비 경쟁의 늪

미국은 지금까지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었고,

한국이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움하하, 사드는 내 작품!"
-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

LOCKHEED MARTIN

군비 경쟁의 늪에 빠져 무기를 도입하는 건

거대 군수업체의
배만 불리는 일이죠

북핵 막는 신의 방패?
진정합시다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온 시간은
6자 회담이 멈추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대화가 단절된 동안 위험은 더욱 커져 왔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드보다는 대화입니다

KEEP CALM AND THAAD, NO THANKS!

진정하고

한반도에는 쓸모도 없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사드는 이제 그만!